

빙축특집
불기 2522년



“수행자에게 가장 근본적인 밀전은 청빈과 겸손인데 이게 여의치 않으니 자기성찰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얻어먹는 습관의 뿌리부터 끊어야 합니다”

초파일 토굴에서 만난 스님



“앉아서 받아먹는 불교는 그만”

산 마다 봄이 찾아왔다. 봄은 울긋불긋한 산비탈의 꽃 잔치에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다. 트랙터가 판판하게 다져 놓은 밭이랑에 씨감자를 넣는 농부들의 분주한 손길에서 느껴지는 봄이 한결 실감난다.

강릉시 왕산면 대거리 산골짜기 마을의 봄 풍경도 씨감자의 촉촉함 애뜻하게 돌아와 있었다. 곰자리 토굴(熊座蘭若). 굽잇길을 돌고 돌아 찾아간 토굴은 여느 농가와 다를 것이 없는 단 한 채의 초집이었다. 큰 산 깊은 골짜기에 있는 것도 모자라 앞집의 비닐하우스에 가려진 채였다. 그러나 마당가의 장작더미와 장독대, 반들거리는 마루와 은은한 향내가 수행자의 도량임을 알려주었다.

지붕 얇은 토굴의 주인은 영봉 스님이다. 한때 조계종단과 산악인들에게 잔하게 이름이 났던 스님이다. 토굴은 조용했다. 3칸 집의 가운데가 법당. 부처님께 절을 하고 나오니 오른쪽 발머리에 앉아 호미질을 하는 스님이 보였다. 두어 뼘 가량의 오가피나무들이 밑동에서 파릇파릇한 싹들을 밀어 올리고 있었다. 일어서서 허리를 펴는 스님에게 함장으로 인사를 했다.

“오가피나무가 참 많네요.”
“5년쯤 되었는데 뿌리를 제법 실하게 내렸어요.”
“스님이 직접 가꾸시는 겁니까?”
“그럼요. 불자들에게 쌀 한 톨이라도 거저 얻어 먹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신도들에게 나눠 주기 위해 재배하신다고요?”

“앉아서 얻어먹는 불교는 이제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신도들에게 받아먹는데 익숙해져서 불교 집단(승단)이 견잡을 수 없이 물질화되고 세속화 권력화 되고 있잖아요? 시주 무서운 줄 알면 지금 같은 모습은 아닐 겁니다. 이게 뭐니까? 며칠 전에 외제 고급 승용차 타고 골프치고 하는 스님들 이야기가 방송됐죠? 난 인터넷으로 봤는데 이 토굴 마당에 구멍이 파고 들어가 묻히고 싶었어요. 그런 방송 한 두 번 나왔느냐고 하겠지만 그런 방송 뒤에 처절하게 자기 성찰을 하고 피눈물 나는 참회로 새로운 모습을 추구하는 움직임은 어디에도 없잖아요. 이 무참한 현실을 만든 게 누구니까? 수행자에게 가장 근본적인 밀전은 청빈과 겸손인데 이게 여의치 않으니 자기 성찰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청빈하고 더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앉아서 얻어먹는 습관의 뿌리부터 끊어야 합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갑자기 격해지고 있었다. 더러 농사짓는 스님도 없지 않은데, 영봉 스님은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타락한 불교계의 현실을 잘라내는 ‘활인검(活人劍)’을 버리는 것 같았다. 마당으로 걸음을 옮기며 스님의 역설(力說)은 계속됐다.

“지금 우리나라는 엄청난 혼란 속에 있습니다. 급성장한 경제 덕분에 잘 먹고 잘 산다고 하지만 경제



영봉 스님이 거처하는 곰자리 토굴 전경.

의 속사정은 도탄에 빠지기 일보직전이고 물질만 추구해 온 지난 반세기 동안 국민의 정신은 황폐할 대로 황폐해졌어요. 가치관의 혼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외세의 침입에 의한 국난보다 ‘안쪽 살림(정신)’이 무너지면 더 큰 국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혼란기에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대중들을 이끌어야 할 집단이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불교집단이야말로 가장 먼저 자각의 새벽을 열어야 할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종교가 경제에 굴복당하고 종교가 세상 정처에 휩쓸려가는 것을 보면서 불교계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열령풍랑 물어가고 있거나 오히려 더 앞장서서 얽혀들고 있는 현실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절을 찾는 불자들에게 우리(승단)가 쥐아할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과 법으로 그들의 아픔과 애환을 고르게 보살피야 합니다.”

영봉 스님은 오래전 다섯살의 링 린포체로부터 들은 한 마디를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스님이 불교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질문했을 때 린포체는 “배우면서 가르치는 것”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스님이 그때까지 이해하고 있었던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수직적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게 됐습니다. 배움과 가르침 그것은 바로 부딪침이라는 것을. 우리 불교는 부딪치지 않기 때문에 관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선방에 앉아서 도를 깨친다고 하지만, 내 생각이 선방은 부딪치고 또 부딪치며 느낀 어떤 절절함을 정리하는 것이어야 할 것 같아요. 세상에 대해 부딪치지 않은 채 학습된 어록 몇 구절로 관념화된 깨달음을 좇는 것은 아무래도 허무한 일일 테니까요.”

사뭇 진지하고 힘이 들어간 스님의 이야기 방향을 슬쩍 돌려 보았다.

“장작더미가 꽤 큰데요.”
“원래 토굴살이의 밀전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장작입니다. 산중에서 긴 겨울을 나는데 장작은 필수니까요. 그래서 토굴을 나갈 때는 다음 사람을 위해 1년 치의 장작을 해 두고 곡식 한 톨을 장만해 두는 전통이 있었어요. 요즘은 해 둔 것만 축내고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장작더미가 큼직하네요. 한 3년 치는 되겠는데요?”
“나는 장작을 하는데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우선 1년 치는 내가 쓸 것이고 또 1년 치는 후시 내가 죽으면 육신을 태울 것이고 또 1년 치는 다음 사람이 쓸 것. 이렇게 3년 치를 확보해 둡니다. 나무를 할 때는 기계톱을 쓰지 않는 것도 원칙입니다. 기계톱을 쓰면 그 엔진소리에 온 산의 나무들이 벌벌 떨거든요. 장작을 쪼개면서 내 번뇌를 타파하고 장작더미를 쌓아 올리면서 내 마음을 쌓고 지계를 질 때마다 내 업을 지고 있음을 생각합니다.”

토굴살이에서는 모든 것이 수행이라더니 영봉 스님도 일거수일투족을 다 수행으로 결부시키고 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궁급했던 질문 하나가 떠올랐다.

“대중생활과 독살이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수행을 돕는가요?”
“어느 쪽이다 하는 기준이 없겠지요. 다만, 자신이 자신을 얼마나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무생사(四無生死)를 말합니다. 먼저 지(知)무생사는 알음알이의 단계인데, 감꽃이 떨어지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감꽃이 떨어진 그 자리에 비로소 감이 맺히니까요. 그 다음은 체(體)무생사인데 체험과 학습의 단계지요. 감이 감으로 자라나는 동안 비바람과 햇살 등 모든 여건들에 부딪치며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계(戒)무생사는 부딪침을 받아들이고 용화되는 단계입니다. 다 자란 감이 서리를 맞으며 자신의 안쪽까지

佛紀 2552年 Buddha's birthday |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p>은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길...</p> <p>대한불교 조계종 명봉사</p> <p>사부대중일동</p> <p>■ 경북 예천군 상리면 명봉리 501 TEL 054)653-1365</p>	<p>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p> <p>흑응산 연방사</p> <p>주지 일봉 사부대중일동</p> <p>■ 경북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208 TEL 054)654-2464</p>	<p>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p> <p>덕산정사.덕산불교대학</p> <p>주지 해암 신도일동</p> <p>■ 경북 예천군 풍양면 낙산2리 산3-4 TEL 054)652-2601</p>	<p>은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세상을 향기롭게...</p> <p>대한불교 조계종 영봉사</p> <p>신도일동</p> <p>■ 경북 안동시 북후면 석탑동 1039 TEL 054)854-1349</p>	<p>대한불교 본원종 경북지구</p> <p>종무원장 주석사찰 고경사</p> <p>주지 자광 신도일동</p> <p>납골당 봉안 영구관리</p> <p>■ 경북 영주시 평은면 지곡2리 89번지 TEL 054)638-8887</p>
<p>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p> <p>대한불교조계종 화엄도량 부석사</p> <p>주지 근일 사부대중일동</p> <p>■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 TEL 054)633-3464</p>	<p>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p> <p>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말사 김용사</p> <p>주지 혜창 부주지 정업 사부대중일동</p> <p>■ 경북 문경시 산북면 김용리 410 TEL 054)552-7006/FAX 054)553-5352</p>	<p>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p> <p>대한불교 조계종 청량산청량사</p> <p>주지 지현 사부대중일동</p> <p>■ 경북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 239 TEL 054)672-1446</p>	<p>래야영가참회도량</p> <p>대한불교 일승종 약천사</p> <p>주지 자운 신도일동</p> <p>■ 서울 노원구 중계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TEL 02)3391-8523 / HP 011-9002-8523</p>	<p>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p> <p>재단법인 선학원관음사</p> <p>주지 도기 사부대중일동</p> <p>관음유치원운영, 군포교, 재소자포교활동</p> <p>■ 경북 영주시 이산면 원리 739 TEL 054)633-1138</p>